

Sermon Title: Suddenly 갑자기

Sermon Text: Acts 2:1-4 사도행전 2 장 4 절

사도행전 1 장에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상태이고, 새롭게 사도가 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일들이 바로 몇일 사이에 일어날 것같이 말씀하십니다. 40 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시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세지는 일관성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의 일찍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지상 목회가 다해갈 무렵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왕국도 재건하시겠습니까?”

이제 20/20 비전의 후반전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질문이 가장 현명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예수님의 메세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정당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 장 14 절에 예수님께서 목회의 시작 무렵에 갈릴리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 장 43 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들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와 논증을 보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6 장 33 절에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12 장 34 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서기관 중 한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네가 하나님의 나라 에 멀지 않다 하시니”

누가복음 12 장 32 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6 장 20 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님은 그 어느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정당화 할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약간 요점을 벗어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이스라엘이 재건되느냐 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이 정치적인 왕국을 재건하시겠느냐? 가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주님 언제 당신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왕국의 후계자들이 되게 하실 겁니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나 한 집단을 말하는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유태인이, 흑인이, 남미인이 아니면 백인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정권을 잡을때 우리는 서로에게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든 세대의 선하고 진실되고, 공평한일을 행하시며 누가 정권을 잡고입건 간에 잘못 인식되고, 정의롭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왕국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을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특정한 교리나 관습과 같은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국가관이나 정치관, 신조, 강령의 개념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정부가 인간의 심장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가 여러분의 심장에 세워진다면 새롭고 더욱 급진적인 정치적 사회적 의도가 이 세상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심장에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 2 장 1 절-2 절에 나타나 있다고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있었습니다. 그때에 홀연히. 그들은 다락방에 문을 닫고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저는 홀연히 (또는 영어 성경 번역에 의하면) Suddenly “갑자기” 라는 말씀이 저에게 일격을 가한것 같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갑자기 - 갑작스럽게 - 팡!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와 장소에 상관없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이 시간 이자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바람과 같이 - 팡!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이 여기에도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여기에도 임하였습니다. 오 오늘 저녁 저는 여기서 설교 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저녁에 설교를 하고 주석을 풀며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는 찰라에 “갑자기”. 모두가 한뜻으로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에서 suddenly 갑자기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 happening without warning or in a short space of time “짧은 시간안에 경고없이 일어나는”이라는 뜻입니다; “갑작스런 폭풍”, “갑작스런 결정”, “갑작스런 치료” 경고가 없었기에 준비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말합니다. 갑자기.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석집에서 읽으며 맞다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감탄했었습니다. 해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 주인공들이지 하나님의 나라 의 시간을 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의 주인들이지 시간을 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을때 그 효력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 씨는 가장 작지만 꽃이 피고 자라나서 무성해지면 그렇게 커지는 식물이 없습니다. 성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짚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자리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안에서 자리잡아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직접 심으시고 거기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확장해 나갑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종교적 의례와 의식을 다 한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면 안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교단 사업계획을 위한 모임에서 우리가 행정 담당자들과 예산을 편성할때 누가 “갑자기” 라고 외쳤으면 합니다. 각 부서가 후원하는 식사 모임 도중에 내가 식사권을 건내 줄때 “갑자기”. 사업 계획들과 조직 편성 표를 검토하고 절차와 정책을 토론할 때 난 눈군가가 “갑자기” 라고 말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평신도 사역자들과 목회자 사역자들, 굉장한 음악, 우리의 설교자들, 목사님들, 예언자들, 성직자들, 사무자들, 의장들, 지도자들, 집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갑자기” 라고 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갑자기는 홀연히 불과 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갑자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가 이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총회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말로 방언을 하고 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렁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고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총회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갑자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새로 뽑힌 의장입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예산안 통과 됐나요? “갑자기” 해결 방안들이 통과 됐나요? “갑자기”.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는 “갑자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고로 잘 된 것이 바로 갑자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입니다. 성령님 뜻대로 되니 갑자기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불타는 수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바로에게 불려가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바다를 앞에두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과 적군에게 포위 되었을때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떠서 무수한 천국의 무리들을 보게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존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메시야가 오게 되는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습니다. 그리고 9 개월 뒤 천사들이 갑자기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사의 불행과 비참함을 당한 수십명 아니 수백명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때, 갑자기, 지평선 끝에서 부터 다가오는 아들을 보게됩니다.

여자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음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스테반은 돌팔매질을 당하며 얼마나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괴로워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구세주에 품안에 안겨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반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이상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이라는 방문했을때 만났던 목사님의 책상 위에 부흥에 관한 책 한 권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던 10 번의 부흥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 가지를 모두다 얘기 할 수가 없지만 책의 내용을 간단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최초의 대단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 불의 혀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사건입니다. 두번째는 1517 년 마티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95 가지 주장을 1517 년 독일 위튼버그 성문에 못 박은 사실은 오순절에서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뜻깊은 일로 남아있습니다. 루터가 개시한 종교 개혁은
그로 부터 영원토록 개신교를 로마 천주교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1727 년에
The First Great Awakening 이라는 첫번째 대 각성이 1727-1750 에 있었습니다. 18 세기
초에 일어난 이 운동은 교회들에게 너무나 대단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대
각성이 되었습니다 - 갑자기. 그뒤에는 1780-1810 에 두번째 대 각성이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조용히 부으셨다. 성령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은 여러 세대를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일어난 아주사 길
부흥(Azusa Street Revival)은 역사적인 오순절과 같은 부흥으로 윌리엄 시모어 (William
Seymour)라는 흑인이 1906 4 월 14 부터 1915 년에 걸쳐 일으킨 운동입니다. 방언의
역사와 충만한 감동의 예배 그 당시에 기적 중에 기적으로 여겨질 만한 흑인과 백인이
섞인 교제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20 세기에 Pentecostalism 일라 불리는
오순절(성령 강림)주의의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한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게 부흥의 역사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 부흥의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단지 유럽과 미국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작업하시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21 세기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갑자기, 비틀거리고 자빠지는 제자회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군인 그리고 용감한 전사가 되어야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말하며 우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보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꿈을 꾸게 되어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전파되고 3000 명의 무리가 마음을 도려내며 우리가 주를위해 무엇을 해야 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회개가 선포되며 어느 누구도 수치심 없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설교자가 방언을 말하고 듣는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카리즈마에 몰두하는 이들이 명상인들이 되고 명상에 몰두하는 이들이 카리즈마인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갑자기,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안에 있는 이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총회가 끝나고 돌아갔을때 새로 뽑힌 의장들, 새로이 의결된 결정 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시길 소망합니다. “갑자기”